



제1호 / '14.4.18(금)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614원 인상!
통상임금 현실화
임금체계 개악 저지!
자녀돌봄휴가 쟁취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시작부터 쉽지않은 14년 지부교섭

아예 교섭에 안나오려는 대표이사들이 문제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 교섭 시작

17일(목) 14시 한라비스테온공조에서 지부교섭이 첫 시작을 알렸다. 올해 지부교섭은 6개사가 참여한다. 작년까지만 참여했던 PLA가 빠지고 새롭게 KDK가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 들어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노동문제에 개입하면서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표이사 빠진 교섭위원은 뭔가?

정권의 행태가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고, 올해 의제도 무거운 의제가 많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풀어가자는 노사 양측의 모두 발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교섭원칙 논의부터 원만치 못했다. 사측이 대표이사를 교섭위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매년 교섭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니 애초에 교섭위원을 임원급 중에서 2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사정상 교섭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조합 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교섭

위원에서 제외하지는 것은 지부교섭의 위상을 아예 무너뜨리는 발상이다.

그동안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원활한 교섭을 위해 대표이사가 불참하더라도 위임장을 받아 교섭을 진행해왔는데, 이젠 대놓고 대표이사가 교섭에 안나오겠다는 형국이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교섭위상을 고려해서 차기 교섭 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 외 교섭원칙은 예년과 비슷하게 정해졌다. 사업장을 순번제로 돌며 교섭을 진행하고 사회는 노사가 돌아가면서 보기로 했다. 다만 교섭 시작시간은 예년의 15시에서 14시로 변경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교섭은 24일 로버트보쉬에서

이날 교섭원칙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차기 교섭에서 교섭원칙을 한 번 더 다루게 되었다. 차기 교섭은 사측 사정상 시간을 조금 당겨 4월 24일(목) 13시 30분에 로버트보쉬에서 개최된다.

1차 교섭 속기록

교섭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없다?

임시 사회 : 한라비스테온공조 김수한 상무

노 : 어제 배가 침몰되는 큰 참사가 있었는데 전체 교섭위원들이 함께 목상하고 시작하자.

<일동 목상>

사회 : 지금부터 지부교섭 상견례를 시작하겠다.

노 : 일년농사라고 할 지부교섭이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행태가 가관이다. 자율적인 노사관계 전 반을 파괴할 수 있는 정부의 태도가 확인되어 어느 때보다 긴장 속에서 교섭을 맞이하고 있다. 앞에 계신 사용주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래도 올해 교섭이 무거운 의제가 많다. 무거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동안 지켜온 노사간의 신뢰나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한층 더 발전하고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올해 교섭이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갈음하겠다.

사회 : 사측은 교섭장소 해당사업장에서 하도록 하겠다. 한라비스테온공조 본부장이 하겠다.

사 : 매년 지부교섭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올해 처음 참석했다. 올해 교섭은 무거운 주제가 많다. 그 어느 때보다 노사간 대화가 절실하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올 한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다.

<노, 사 양측 교섭위원 소개>

사회 : 올해 처음 참석한 KDK 인사 부탁드립니다.

사 : 서울에서 지부교섭을 했을 때는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과 했는데, 여기는 규모 차이가 많이 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회 : 운영원칙 논의하겠다.

사 : 교섭장소는 사업장 순회하는 방법으로 하자.

노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순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자.

사 : 교섭시간을 예년 15시에서 올해 14시로 변경했다. 사측은 동의하셨는데, 조합측은 문제 없으신지?

노 : 14시부터 15시까지라고 써놨는데, 끝나는 시간을 명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 : 끝나는 시간이 변동적인 건 공감한다. 원칙 정도로만 하고 융통성있게 운영했으면 한다.

노 : 원칙정도로 하되, 교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자.

사 : 문구는 간사협의를 통해 정하겠다. 교섭위원을 각 사별 2명으로 했는데, KDK가 현재 어려움이 있다.

노 : 2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KDK는 사정에 맞춰서 결정하자.

사 : 대표이사가 매번 참석하기 어려워 교섭위원을 임원급 2명으로 했는데 조합측 의견은 어떤가?

노 : 교섭위상을 고려해봐야할 문제다. 차기 교섭 때 논의해보자.

사 : 교섭성원은 각 사별 1명 이상으로 하겠다. 간사(사측 한라비스테온공조 김수한 상무, 노측 성세경 사무국장), 사회(사측 코스모링크 민태홍 부장, 노측 대한이연지회 교섭위원 1인), 서기(사측 한라비스테온공조 홍순천 부장, 노측 임성우 교선부장) 결정하겠다. 차기 교섭은 조합측 양해를 얻어 로버트보쉬에서 4월 24일(목) 13시 30분에 진행하겠다.